



기능올림픽 훈련원생 '다섯 손가락'

한국 제과 미래에 파란불 반짝

(사)대한제과협회는 2004 헬싱키 기능올림픽 선수 선발을 앞두고 우리 제과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기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월 17일 '기능올림픽 훈련원생'을 선발했다. 치열한 경합을 거쳐 뽑힌 다섯 명의 훈련원생은 땀땀하고 고된 훈련 일정을 소화하느라 부모님 얼굴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강행군을 치르고 있다.

글·김미선 기자 | 사진·정영주

“금메달 하나 갖고 있으면 폼 나잖아요.”

열여덟 살 한서광이 밝힌 기능올림픽 도전 이유다. 지난 해 12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대한제과협회 기능올림픽 훈련원생으로 선발된 다섯 명의 전사들은 아직 장난기가 채 가시지 않은 10대의 신세대들로 얼굴에 난 여드름이 고민스럽기만 한 ‘아이들’이다.

같은 목표를 향해 출발한 다섯 명의 전사

‘재밌을 것 같아서’ ‘쉽게 해 볼 수 없는 경험이라서’ 심지어 ‘군대 면제를 노리고’ 까지 기능올림픽에 도전하는 이유가 각각의 개성만큼이나 가지각색이다. 하지만 쉽게 이룰 수 없는 목표를 꼭 정복하고야 말겠다는 도전 정신만큼은 다섯 명 훈련원생에게서 똑같이 느껴지는 공통분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과점에서 3년 정도 일하고 나니 마냥 좋기만 했던 기술이 그저 단조로운 일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회의가 느껴졌어요. 기능올림픽 훈련원생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자마자 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물두 살 ‘최고령자(?)’ 라는 이유로 훈련원생을 대표하는 반장을 떠맡았다는 서혜정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도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 숨겨 둔 결의가 남다르다.



양지선 (20) 불량제리 드르방

66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꼭 꿈을 이룰 거예요** 99



서혜정 (22) 김영모과제과점

66 **기술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게 해준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99

“5명이 모여 합동 훈련을 받는 주말이면 서로가 일주일 동안 밀렸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느라 재잘재잘 정신이 없다”며 “일단 작업대 앞에만 서면 기술에 대한 욕심이 팍 찬 프로 기술인으로 순식간에 바뀐다”고 아이들의 주말 훈련을 책임진 (사)대한제과협회 오병호 기술지도위원의 칭찬에서 이들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요즘 그들의 생활은 누가 봐도 빡빡하다. 주중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자 배정받은 제과점에서 개인 훈련을 받는다. 훈련원생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남다르게 생활해도 된다’는 특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똑같이 새벽 다섯 시에 하루를 시작해 다들 퇴근한 늦은 밤까지 공장에 혼자 남아 연습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지선은 훈련원생으로 선발된 다음부터 기상시간이 새벽 네 시로 바뀌었다. 새벽 다섯 시까지 분당에 있는 제과점으로 출근해서 오전 내내 공장 사람들과 양과자를 함께 만드는데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지선이로선 자신이 몰랐던 양과자를 하나씩 알아가는 지금의 과정이 신기하기만 하다.

“하나도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언제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술을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지선이는 더 많이 연습해서 아직은 낯선 분야인 설탕공예를 빨리



김
호
겸

(20)
마이크 동그자빵

“기술 발전은 제 스스로 일궈나갈
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명의 라이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

“9월 선발전에서 우리 다섯 명 중 많아도 2명까지만 결선에 올라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경쟁심이 생길 수밖에요.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호겸이와 세근이는 작업실에서 남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날카롭게 각을 세우면서도 서로의 작품에 대해 진심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였다.

큰 꿈을 위해 당장의 어려움은 참아낸다

올 3월 새 학기가 되면서 서광이는 ‘고 2’가 됐다. 개학한지 한 달이 다 되는데 집중 훈련 때문에 학교는 구경도 못해 본 상태. 한창 친



한
서
광

(18)
코콜라베르 그라자빵

“기술 하나하나를 배우고 익혀
자는데 정말 신나고 재밌어요”

손에 익혀야겠다며 상기된 얼굴에 조바심을 담아낸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자, 싹트는 우정

닷새간의 개인 연습이 지나고 주말 합동 훈련을 위해 대한제과제빵 학원에 모이면 다섯 명의 훈련원생들은 ‘티 안 나게’ 분주하다. 연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다른 친구들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나보다 잘하는지’ 눈치채지 않게 서로의 작품을 살피느라 눈동자를 설 새 없이 굴러댄다.

기술에 대한 욕심이 똑같이 대단한 다섯 명 가운데 최고의 라이벌은 김호겸과 김세근. 그들이 서로에 대해 긴장을 늦추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둘이 유난히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처음 보는 사람은 헛갈릴 정도로 닮은꼴인 외모는 물론, 한 살 차이의 또래, 유명 제과인의 2세, 설탕공예를 제일 좋아한다는 점 등 두 사람은 속



김
세
근

(21)
안스베어머핀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초콜릿
공예가 성취감은 가장 크죠”

구들과 어울려 개구쟁이 짓을 하며 돌아다닐 때라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눈치다. 올해 대학생이 된 호겸이도 “캠퍼스의 낭만을 경험해보고 싶다”며 때때로 투정을 부리곤 한다.

그들이 제 또래 친구들이 누리는 평범한 생활을 눈 한번 찔끔 감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꿈’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의 목표인 ‘기능올림픽 출전’을 넘어, 그들에게는 ‘최고의 제과인이 되겠다’는 큰 꿈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쩌면 기능올림픽에 출전해 한국의 제과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야 말로 그들이 꿈꾸는 ‘최고의 제과인’이 되기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오늘도 기능올림픽 훈련원생들의 작업실에는 밤이 늦도록 불이 꺼질 줄 모른다. ⑤